

우 리 의 목 표



- 친목
- 복지후생 증진
- 언론문화 창달

“좌로 가는 대한민국
우측 감박이를 켜라”
-안병직-이영훈 교수 대담집

大韓言論

Korea Journalists Club

月刊 12 2007년 12월 1일
제 261호

사단법인 大韓言論人會
발행인 諸宰馨 편집인 金珧熙

100-745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 1405호
T. 02)732-4797, 2001-7621 F. 02)730-1270
www.kjclub.or.kr E메일 kjc1405@hanmail.net

• News Focus

정권 말 ‘대못질’ 어디까지?

기자실에 대못질한 노 정권, 임기 말 그 여세를 몰아
코드에 맞춰 화폐 인물에 대못질하더니
국가기념일까지 대못질하려 들고 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문 발표 날인
6월 15일을 민족의 공동 기념일로 하자고?



펜은 녹슬지 않는다

‘대한언론인회 30년사’가 나왔다. 1977년 4월 25일 독립신
문 창간 정신을 이어 받아 ‘회원간의 친목과 연구를 통해 이
나라 언론 발전에 기여하자’며 첫발을 내디딘 대한언론인회.
그 30년의 발자취가 총 정리돼 있다.

· 관련 글 5, 7면



大選! 우리의 선택은?



金景來

- 본회 논설위원
- 전 경향신문 편집국장
- 전 국민일보 논설고문

나라와 겨레의 장래를 결정지을 대선의 날이 다가왔다.
우리는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이번 대선의 본질적인 이슈는 좌파정권의 종식이나, 아
니면 연장이냐에 있다. 좌파정권의 종식이나 연장이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적으로 좌우되기 때문이다.
경제가 중요 이슈인 것은 틀림없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국
가의 이념과 정책의 산물이기 때문에 근원 문제는 사상과
정신에서 찾아져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 12월 19일 대선에는 북의 김정일과 그의
추종세력들이 총동원 되고 있음이 분명해 졌다. 정상회담
이 대선용이었다는 분석도 거기에 근거한다. 또 “우리가
재집권하지 않으면 한반도에 전쟁이 날지 모른다”며 국민
을 상대로 협박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DJ의 발언을 보라.

따라서 압도적인 표차로 좌파 10년을 퇴출시키지 않으면

국민과 역사 앞에 후회 없는 한 표를

자유민주 대한민국은 제2의 월남 꼴이 되고 말 것이다. 파
리 평화협정에 속은 월남은 미군 철수에 동의했다. 미군과
함께 외국 자본들이 월남을 떠났다. 다음날 공산 월남은
협정을 파기하고 총공세를 취했다. 그리하여 자유월남 공
화국은 소멸되었다. 보트피플60만, 대량학살 200만, 그리고
경제는 거덜 났고 교회와 성당, 사찰들은 숙청 대상이 되
었다.

1960년 4·19이후 이승만 대통령은 스스로 하야하고 망
명길에 올랐었다.

그 당시 남북한의 공산좌파들은 일제히 일어나서 “독재
자 이승만”을 성토했다. 살벌한 그 와중에 한 사람의 목사
김린서 웅이 어엿이 나타나 <망명노인 이승만을 변호함>이
란 책을 펴냈다. 이승만은 대통령이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되는 네 가지 대죄(大罪)는 짓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첫째: 전쟁패망 죄, 둘째: 국체변혁 죄, 셋째: 영토상실
죄, 넷째: 국록토색 죄, 그 외의 크고 작은 허물과 죄는
다 용서 받을 수 있고 덮여두어 역사에 맡기면 된다고 했
다. 이승만 이후의 역대 대통령을 김린서 잣대로 살펴보
면 적어도 몇 사람은 국민저항권 발동대상이었다.

· 3면에 계속 →

‘30년 대한언론인회’ 기념비 새기다!



· 대한언론상 수상자, 고희연 회우, 30년사 출판 공로 회우 등이 본회 회장단 고문들과 함께 기념촬영.

대한언론인상 시상 · 고희연 · 30년사 출판기념회

11월 30일 ‘3합행사’ 대성황
송년의 밤

올해 ‘송년의 밤’은 연례행사인 ‘대한언론상’
시상식과 회우들 ‘고희연(古稀宴)’과 함께 ‘대한
언론인회 30년사’ 출판기념회도 겸한 ‘3합 송년
회’로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12월 19일 대선 때문에 예년보다 앞당겨 11월
30일(금) 오후 5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
의장에서 열린 2007년 한해를 마감하는 (사)대한
언론인회 송년회 행사에 300여명의 회우와 현승
중(玄勝鍾) 전 국무총리, 이동호(李同浩)전 내무
부장관 등 많은 외빈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제재형(諸宰馨) 회장은 ‘30년사’ 발행 인사말을

통해 “1977년 4월 25일 창립된 대한언론인회가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이했기에 한 세대를 결
산하는 뜻으로 편찬한 ‘대한언론인회 30년사’ 출
간을 자축, 기념하게 된 것은 우리 전 회원뿐 아
니라 언론계, 학계, 정치, 경제 및 행정 분야 모
두의 기쁨이요, 기념비”라고 했다. 특히 새 대통
령을 뽑는 역사의 전환점에서 간행된 본회 30년
사는 사회의 반사경으로 살아 숨쉬는 역사의 증
언자가 될 것이며, 정직한 사초(史草)로 활용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 6면에 계속 →

CONTENTS

· 이달의 大韓言論



③ · 취재통제
규탄시위

Prize

⑤ · 大韓言論賞 영예의 수상자

Bulletin

⑥~⑦ · '07 송년의 밤 이모저모

Heal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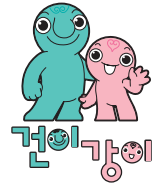
⑧ · 뇌졸중 쓰러지지 않는 비법
· 회우들에 침술봉사

Cinema

⑨ · 哀愁 Waterloo Bridge

History & He-story

⑪ · 바람막이 천관우 국장



건강정보전문 포털사이트

건강 *in*을 만나면 건강인이 됩니다



검색창 **건강in** 또는 **건강인** ▼ **검색**

건강in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건강정보전문 포털사이트로서 전문가의 검증을 거친 믿을 수 있는 건강정보와 맞춤형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홍보대사 / MBC아나운서
오 상 진

溫故知新

궁둥이가 무거웠던 지난 날

1961년 3월로 기억한다. 그 무렵 화식집으로는 서울시청 뒤쪽의 '향진(香珍)'이 유명했다. 민족일보의 조용수(趙鎭壽)사장이 거기서 술을 냈다. 그리고 민족일보로 와서 정치부차장으로 국회·정당 보도의 책임을 맡아달란다. 그때 나는 민족일보(5·16 얼마후 자진폐간)에서 정치부기자로 국회와 혁신정당을 담당하고 있었다. 편집부에서 정치부로 옮긴지 7개월쯤밖에 안되었을 때다.

아마 혁신세력에 관한 보도에 있어서 민족일보가 민족일보보다 훨씬 좋았기에 나를 욕심낸 것 같다. (그 후의 연구논문에서의 인용빈도를 보아도 그렇다.) 기자경력 겨우 3년밖에 안되었을 때이니 그 제의에 구미가 당기지 않았다면 거짓일 게다. 그러나 나는 사양했다. "내가 민족일보로 옮긴지가 8개월쯤밖에 안되었습니다. 1년 이상은 채워야지요. 내 이력서에 한 신문에서 1년도 못 채우고 옮겨 다녔다는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1년을 넘기고 난 다음에 그때도 필요하다면 다시 이야기 하기로 하지요."



南載熙

· 본회 지문위원
· 전 서울신문 주필
· 전 노동부장관

그후 두달 남짓 지나 5·16이 나고 조용수 사장은 억울하게도 사형에 처해졌다. 민족일보의 간부들은 많이가 얼마동안의 형을 살았다. 박정희장군이 그의 좌익경력에 대한 미국의 의심을 풀기 위해 혁신계에 가혹한 탄압을 한 것 이라는게 정설이 아닌가 한다. 여하간 나도 옮겨갔더라면 몇년은 면벽을 했을 것으로 짐작한다.

조선일보 논설위원으로 있을 때다. 가까운 친구인 손세일(孫世一)씨는 동아일보에서 실제로 통했다. 그가 나를 도와준다고 동아일보의 논설위원으로 끄는게 아닌가. 물론 대우도 좋은 조건이다. 나는 역시 사양했다. "내가 니만 펠로로 하버드에 1년 가

있으면서 조선일보로부터 월급을 계속 받았다. 공짜인 셈이다. 그후 2년여밖에 지나지 않았다. 그 신세를 갚으려면 좀 더 세월이 지나야 한다." 역시 이력의 관리문제와도 관련된다.

이력서 관리문제를 "궁둥이가 무거워야 한다"는 서민들 표현으로도 말할 수 있겠다. 나는 시골의 농경사회적 분위기에서 자라났기에 유교적 사고방식이 짙게 남아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소도시에서는 소문도 빠르게 전파되고 그 때문에도 두려워 행동거지를 조심하게 되기에 나는 '소문의 힘'이란 말을 만들어도 보았다.

나의 이제까지의 경력은 그래서 궁둥이가 무거운 편이다. 무얼 한번 하면 즐기차다. 서울신문 편집국장도 만 5년을 하고 사정사정해서 해방되었다. 지식인으로서의 비판받을 일이었지만 여당 국회의원으로 네번이나 지역구 연속 당선이다.

그런 나도 모험적인 점프를 한적은 있다. 편집부를 벗어나 정치부를 해보려고 첫 직장인 한국일보를 아쉽게 사직하고 무게가 떨어졌던 민족일보로 간 일이다. 의예과 2년을 팽개치고 법대로 신규 입학 한 것도 눈을 질끈 감고서의 점프이지만... 그 두 번 말고는 전반적으로 궁둥이가 무거웠다 할 것이다. 



“언론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대한언론인회, 취재통제규탄

대한언론인회(회장 제재형)는 11월2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정부의 취재통제 조치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 내용 별항)

회원들은 외교부 청사 로비에 임시 기자실을 만들어 기사를 쓰는 기자들을 격려하려 했으나 청사 관리팀이 출입을 허용하지 않아 청사 앞에서 '언론탄압 분쇄하자'는 플래카드를 펼치고 집회를 가졌다. (사진)

이날 집회에는 제 회장 외에 이혜복 상임고문, 이형, 남시욱, 강승훈, 김광희, 김영일, 김호기, 현소환, 이억순, 구종서, 정기정, 신동식, 맹태균, 정운중, 김건이 회우 등 20여 명이 참가했다.



성명서

“폭군 연산군도 言官 출입은 안 막았다”

1. 우리는 언론문화 창달에 평생을 바쳐온 원로언론인 공동체인 대한언론인회 회원들입니다.

2. 정부가 언론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출입기자실에 대못질을 한 까닭에 언론매체가 질식 상태에 빠진 오늘의 상황을 더 이상 참고 볼 수 없어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기자실을 쫓거나 추위에 떨면서 취재하는 후배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 여기에 섰습니다.

3. 당국의 소위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은 그 이름과는 달리 자유·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언론말살 정책입니다. 정부는 국제언론인협회(IPJ)를 비롯, 온 세계가 우려하는 이 언론탄압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4. 기자는 정부가 하는 일을 신속·정확히 세상에 알리고 정부의 잘못을 감시하는 국민의 눈과 귀요, 입입니다. 정부는 숨길 것이 어찌 그리 많기에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을 틀어막으려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군사 독재 정권이나 폭군 연산군도 기자나 언론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지는 않았습니까.

정부는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기 전에 스스로 결자해지 하는 마음으로 이번 조치를 즉각 자진 철회해야 마땅합니다. 언론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2007년 11월 2일
사단법인 대한언론인회 회장 제재형

‘저항 햇불’ 이어가야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은 법도 아닌 총리훈령으로서, 헌법상 언론자유 조항을 난폭하게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깔아뭉개는 막가파식 위법행위와 다르지 않다. 건국 후 언론이 60년간 투쟁해서 제도로 정착시킨 기자실 제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총리훈령 하나로 폐지해 버린 것은 독재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외치던 '언론과의 전쟁'이 실질임기 2개월을 남겨놓고 최후의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11월 2일에는 원로 언론인 모임인 대한언론인회 회원들이 합동브리핑센터가 설치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외교부 청사) 앞에서 브리핑룸 통·폐합 폐지를 항의하는 규탄시위를 벌임으로써 언론계의 지구 노력도 행동화에 들어갔다. 신문방송편집인협회와 기자회견, 방송기자클럽 등 언론단체들도 한 덩어리로 뭉쳐 취재 탄압 조치에 저항의 햇불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할 것이다.

여영무 (뉴스앤피플 대표·본회 회우)
· 광화문문화포럼(회장 남시욱 회우) '노무현 정부의 취재통제조치' 제목 강연에서 (11월 14일)

← 1면에서 계속

大選! 우리의 선택은?

서해교전에서 패하게 한 자, 독도 영유권을 외면한 자, 자유민주체제를 허무는 자, 대북비밀 송금·공적 자금 남용·재산 해외도피 등 반 헌법적 돌출행동으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 자들이다. 지난 10월 4일 평양에서 노무현대통령은 김정일과 만나 평화선언을 발표했다. 허울이 좋아 평화선언이지 일방적으로 퍼주겠다는 약속에 다름 아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천문학적인 액수로 퍼주겠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그만큼 부담을 주겠다는 얘기다.

국민들의 동의도 없이 대통령 마음대로 이렇게 퍼주겠다니 임기 말을 앞두고 해도 너무했다는 비난의 소리가 높다. 보수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시선을 집중시켜야 할 곳이 어딘지 다짐해야 한다. '남북관계만 잘되면 다른 건 다 꺾관쳐도 좋다'고 한 말이 누가 어디서 왜 했는지를 되새기면서 2인 3각 경주에 나서야 한다.

오는 19일 대선에서는 김린서 목사의 '대통령 대죄론'을 상기하며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을 뽑아 국민과 역사 앞에 다시는 후회 양기를 기대해 본다. 

신입회우 환영합니다

• 가나다 순



• **김수웅(金秀雄)회우**
36년생. KBS라디오 편성국장, 대구 방송총국장. KBS사우회 차기회장. 서울 양천구 신정1동 목동 신시가지 A. 902동 1103호 ☎ : 02)2642-7973 우)158-769



• **김진현(金鎭玄)회우**
36년생. 동아일보 논설실장, 한국 경제 회장, 문화일보 대표이사, 과거 처장관, 서울시립대 총장. 서울 강남구 개포동 12-2 LG자이A. 102동 901호 ☎ : 02)6000-5151 우)135-543



• **김흥수(金興壽)회우**
43년생. 한국경제 산업2부장, 논설 위원,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세종A. 646동 1402호 ☎ : 02)031-394-7929 우)435-040



• **서병주(徐炳晷)회우**
35년생. KBS 창원방송총국장, 라디오 본부장. 비스코스덴탈 아시아 대표(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1499. 대화마을 GS자이 A. 101동 1004호 ☎ : 031-912-0077 우)411-764



• **오인문(吳仁文)회우**
42년생. 한국일보 주간여성부장, 숭의여대 겸임교수, 한국경영문화연구원 원장(현). 서울 종로구 홍지동 69-17 ☎ : 02)395-6372 우)110-020



• **이두석(李斗石)회우**
39년생. 중앙일보 사회부장, 세계일보, 문화일보 편집국장-논설실장, 경제 풍월 부회장(현) 서울 서초구 서초4동 삼풍A. 16동 308호 ☎ : 02)535-5780



• **이항숙(李亨淑)회우**
45년생. 한국일보 문화부 차장, 코리아헤럴드경제 문화체육부장. 서울 서초구 반포4동 60-5 미도2차A.501동 305호. ☎ : 02)3476-5545, 02)535-5780 우)137-788



• **장 옥(張 鉦)회우**
45년생. 신아일보 기자, 경향신문 경제부 차장-주간부 부장, <주>경향 미디어 상무이사 서울 성동구 응봉동 98 응봉 현대A. 105동 104호. ☎ : 02)2282-3334 우)133-770



• **전의식(田宜植)회우**
45년생. 서울신문사 TV가이드, 선데이서울 부국장, 뉴스피플 부국장.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364 신안A. 101동 1202호 ☎ : 02)932-6529 우)139-798

창립정신을 되새기는 備忘錄

‘대한언론인회 30년사’ 편찬을 끝내고

먼저 ‘대한언론인회 30년사’ 대표 집필자로서 이 책 출판기념회를 약속된 날짜에 갖게 된 것을 무엇보다도 기쁘게 생각한다. 처음 이 작업에 착수했을 때만해도 엄청난 두려움과 책임감으로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다.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착수해야 할 지 막막했고 자료를 찾는 일 또한 쉽지 않았으나 모두가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집필해준 필자 여러분의 값진 노고가 있었기에 이 책 출판이 가능했다고 생각하니 감사한 마음 필설로 다 표현할 길이 없다.

대한언론인회 30년사 편찬 작업 중 가장 존경스럽게 느껴진 것은 무엇인가. 후진들을 위해 보람 있고 유익한 일을 해보겠다는 일념으로 대한언론인회를 창립한 30년 전 선배 언론인들의 값진 노고였다. 정치, 사회, 경제 어느 하나 만족스럽지 못하였던 30년 전, 특히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웠던 혼미한 언론 상황 속에서도 원로 언론인들이 ‘4·7 구락부’를 발족시킨 것은 퇴직 언론인들의 친목과 후생 복지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 자유언론 창달에의 기여를 최대 사명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가 용솟음쳤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된다. 대한언론인회 30년사는 그런 점에서 우리 대한



鄭雲宗

• 본회 이사
• 30년사 편찬주간

언론인회가 30개 성상을 씬 없이 달려온 ‘언론자유 지킴이’로서의 소중한 역사이자 생동감 넘치는 비망록이라고 감히 말 할 수 있다.

우리들이 언론계에 몸담았던 경험과 경륜은 퇴직 후에도 사장(死藏)될 수 없는 값진 자산으로서 언론의 장래와 후진의 계도를 위해 중요하다는 인식은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다를 바 없을 것이다. 대한언론인회 30년사는 바로 이 같은 인식위에서 창립정신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자유언론 창달을 위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해 보자는데 주안점을 두었음도 아울러 밝혀둔다.

전체적인 구성은 창립정신, 성장과 도약, 정체성 확립과 언론창달, 우리의 목소리를 담은 회보가 걸어온 길, 명예의 전당 및 대한언론상, 출판 공익사업, 후생복지, 연지(年誌)와 각종 자료를 정리한 부록 순으로 엮었다.

주로 30년 동안 걸어온 족적을 사실대로 기록하는 형태로 편성했지만 앞세운 것은 언론사를 떠난 원로 언론인들이 언론 창달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기여했으며 어떤 목소리로 정체성을 살리려 노력했는지에 대해 빠짐없이 기술하고자 노력했다. 일일이 원고청탁 서한을 띄우고 회보에도 여러차례 안내문을 게재했지만 동참하신 분들의 글만 신게 되었음을 아쉽게 생각한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생각을 달리하거나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겠지만 훗날 누군가 보완의 기회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특히 감명 깊었던 일은 수원 효행병원에서 김광섭 전 회장님을 뵈었을 때 95세 노구임에도 직접 쓴 원고를 손에 쥐어 주시면서 감개무량해 하시던 모습이다.

끝으로 여러모로 후원을 아끼지 않은 제재형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과 삼복더위를 무릅쓰고 열심히 집필해주신 김건이, 김재영, 맹태균, 정진석, 지용우, 황대연 회우님, 어려운 교열 일을 맡아준 이상호 회우님,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상하게 자문 해주신 이혜복 상임고문님, 김진섭 선생님(창립 발기인)께 머리 숙여 감사사를 드린다.

산악회소식

아차산서 ‘송년산행’

바보 온달장군의 전설이 있는 아차산(해발300m)에서 송년산행을 갖기로 했습니다. 한해가 가기전에 산악회우 전원이 참석하여 건강한 한해를 보냅시다.

- 일시: 12월 26일(수) 오전 11:00
- 집합장소: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 1번출구, 오전 11시 정각출발
- 산행코스: 만남의 광장→팔각정→정상(총 287m 약2시간 소요)
- 준비물: 음료수, 간식 각자준비
- 연락처: 산악회 총무(011-443-0063)

※산행뒤 송년 단합만찬

대한언론인회 산악회 회장 조 창 화

♣ 부음

삼가 명복을 빕니다



• **이원영(李元榮)회우**가 11월 19일 서울 삼성병원에서 지병으로 별세. 향년 80세. 이 회우는 대한일보 편집부국장을 지냈다.



• **최근영(崔權泳)회우**가 11월 26일 서울의료원에서 별세. 향년 83세. 최 회우는 대한일보 지방부장

장과 편집부장을 역임했다.



• **정연권(鄭然權)회우**가 지난 11월 24일 뉴질랜드에서 숙환으로 별세. 향년 78세. 정회우는 1958년 동아일보에 입사해 외신부장 영국특파원 논설위원 이사 등을 지냈다.

동 444번지 서강 쌍용예가 104동 802 호 ☎ 02-2677-6987 우)121-190

제재형 회장 제16대 회장 입후보 등록

제16대 회장 후보로 제재형 현 회장이 회원 30명의 추천을 받아 지난 11월 29일자로 본회 사무처에 정식 등록했다. 회장 입후보 등록은 본회 정관에 따라

결격 사유가 없는 회원 30인의 추천서와 신청 서류를 갖추어 본회 사무처에 12월 14일 오후 5시까지 등록하면 된다.

十匙一飯

십 시 일 반

• 찬조금·발전기금 기탁회우

金后蘭 회우 300만원

김후란(金后蘭) 회우는 삼성생명공익재단으로부터 받은 제7회 비추미 여성대상(문화-언론부문) 시상금 가운데 300만원을 본회 발전기금으로 내놓았다. • 관련기사 14면

■ 회비 내신 회우

• 2007년분

박진열 박진서 장순재 장행훈
조용중(08년분 포함) 최경호 한광희

• 2006년분

최경호 장행훈(04, 05년 포함)

농협 056-01-105628 예금주: 대한언론인회

특출한 글맛, 매서운 풍자

• 대한언론상 영예의 수상자 소감과 대표적 칼럼 · 만화

‘더 좋은 글’로 격려에 보답



백화종

· 국민일보 편집인 겸 전무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신문쟁이 35년 만에 찾아온 가장 큰 행운인 것 같습니다. 제가 행운이라고 말씀 드리는 것은 제가 한 일에 비해 너무 큰 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수상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무척 기쁘면서도 무거운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과연 한국 언론계의 가장 큰 어른들 모임으로서 오랜 전통을 가진 대한언론인회가 주시는 상을 받을만한 자격이 있는지 자문해봤습니다. 칼럼을 쓰지는 15년이 넘었습니다만, 언론계의 다른 선배 동료들처럼 화려하거나 촌철살인의 필치로 국가민족이 나아가야 할 길을 밝히는 고담준론을 펼쳐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보다는 세상의 필부 필부들이 사랑방이나 저자거리에서 얘기할법한 작은 주제들을 한담하듯 평이하게 쓴 제 글을 볼 때마다 초라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았습

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 이처럼 큰 상을 주시는 것은 선배 언론인들께서 사위어가는 등잔불에 기름을 붓듯 비실거리는 후배에게 정신 차리라고 격려 편달하시겠다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꾸짖는 것보다 칭찬하는 게 어린이의 성장 발전에 훨씬 더 큰 효과를 발휘한다는 교육 실험 결과를 응용한 것이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저는 선배들께서 저에게 베풀어주신 격려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남은 기간 두 눈 똑바로 뜨고 사물을 직시하면서 원고지를 메워 나가겠습니다. 대한언론인상 수상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대한언론인회가 저에게 상을 주신 게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다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절차탁마하겠습니다.

뽑아주신 대한언론인회의 제 재형 회장을 비롯한 원로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보잘것 없는 제 칼럼에 15년 넘게 지면을 할애해주신 국민일보와 격려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국민일보 독자 여러분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4컷 만화’ 중흥의 계기로



이홍우

· 동아일보 편집위원 (국장급 · 만화가)

저는 잡놈 기질이 많습니다.

중학교 2학년때는 만화 그리는데 반대하는 부모님께 맞서 만화가가 된다고 서울로 무단가출을 했습니다.

서러벌고로 유학 온 부산 촌놈이 학원잡지 등에 소개되어 여학생 팬레터가 쏟아지자 덩치 큰 녀석들이 화장실 뒤로 끌고가 폭행을 했습니다. 저는 권투를 배웠고 학생 선수권 대회에서 사우스포의 이점으로 뱅텀급 결승에 올랐습니다. 결승전에서 두 번 다운시켰는데도 다른 선수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힘 없는 미아리의 성북체육관 소속이라 판정이 그렇게 된 걸 알고 더러워서 권투 때려치웠습니다. 69년엔 ‘저푸른 초원 위에 그림같은 집을 짓고’란 남진의 히트곡(남과 함께)을 작곡한 남국인 씨를 만나 저음이 아주 좋다는 소리에 레코드 구입하고 판파라가 되었습니다. 방송에 나오는 나훈아·배호·남진 등의 노래와 비교해 보니 제 노래는 족달불급이었습니다.

3가지중 끝까지 매력을 가진게 만화였습니다.

죽기살기로 그렸습니다. 다른신문엔 고바우, 두꺼비, 왈순아지매 등 기라성같은 선배들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년이 지나자 몇 개 상도 탔고 이번엔 언론계 대선배님들의 모임인 대한언론인회에서 주는 과분한 상을 받게 됐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만화그린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만하지 말고 더욱 노력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의 만화주인공(나대로)은 글자 그대로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간다는 나대로입니다. 대경대로란 거창한 불가의 말씀을 차치하더라도 자의식이 매우 강합니다.

나대로 살다가 불잡을 때 나대로 떠나겠습니다. 요즘 주요신문에 4컷 만화가 하나 둘 사라져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제발 각 신문에 옛날처럼 4컷 만화가 모두 실리는 전성시대가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컷 만화의 기법인 기승전결 중에서 결로치닫는 저의 만화인생이 보입니다. 다시한번 4컷 만화의 중흥을 고대하면서 대한언론인회의 무궁한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백화종 칼럼

쓰레기더미에서도 장미는 핀다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건 쓰레기더미에서 장미꽃이 피길 바라는 것과 같다.” 영국의 한 신문기자가 1950년대에 한국을 취재하여 보낸 기사의 한 대목이라고 한다. 당시 정치, 경제, 사회의 후진성에 대한 느낌이었을 것이다. 이 기사가 오늘의 한국 정치판을 본다면 어떨까. 자신이 반세기 전에 예언했던 바가 틀리지 않았다고 쓰지나 않을지.

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은 혼돈 그 자체이다. 동네 축구도 엔트리는 있는 법인데 앞으로 5000만이 5년간 타고 갈 한국호의 선장을 뽑는 박계임이 대진표도 없이 25일 공식 개시됐다. 25일 후보 등록 첫날에만 9명이 등록하여 우리 대통령선거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선수가 많은 것 자체가 다행한 바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이중 중도하차할 선수가 끼여 대진표를 흘뜨리고 선거판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함량 미달 선수가 너무 많다. 대통령 후보 반열에 이름이나 올리고 싶어 나온 이, 연습 삼아 나온 이, 주위 사람 중동질에 끼움을 추듯 나온 이, 안 팔리자 핫김에 나온 이 등 별의별 선수가 다 있다. 부동산 투기하듯 총선 공천 지분 등 프리미엄을 받고 후보 자리를 팔려는 이도 없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선거 막바지에 대진표를 다시 짜야 할 것 같다.

완주할 가능성이 크고, 그 중 한 사람이 당선

될 게 확실한 빅3 후보들도 탐탁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최고 지지율의 후보는 여러 도덕성 시비에 시달리면서 주가조작 혐의의 사기꾼과 공범이니 아니니 사투를 벌이고 있다. 두 번째 지지율의 후보는 코스를 제대로 밟지 않고 새 치기를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세 번째 지지율의 후보는 현 정권의 부채까지 떠안아 역대 여당 후보로서는 최저인 10%대의 지지율 상태를 못 면하고 있다.

이들이 선거에 임하는 자세도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한 사람은 자신의 도덕성 시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대세만 믿는 모습이다. 또 한 사람은 앞서 언급한 사람이 도덕성 시비로 만신창이가 돼 낙마 지경에 이르면 자신이 그의 대안으로 선택될 걸 기대하는 눈치다. 나머지는 한 사람은 앞서 말한 두 사람이 보수 세력을 분점하면 자신은 진보 세력 등 전통적 지지기반을 결집하여 어부지리를 취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빅3 후보의 이 같은 모습 때문에 정책 경쟁은 실종되고 네거티브와 판세를 뒤집으려는 합종연횡이 대선 정국의 이슈가 되고 말았다.

이런 식이다보니 유권자는 혼란스럽다. 상당수 유권자는 후보 선택에 큰 혼란 겪고 있고 확신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할 가능성이 크다. 확신이 서지 않은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의 케

편집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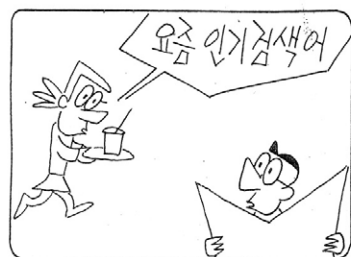
스팅보트(결정권)를 쥐고 있다는 건 문제다.

이번 선거가 이처럼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렇다면 “선거란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하는 것”, 아니 “최악을 피하고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말까지 있다. 유권자들이 요구하는 만큼의 진선진미(盡善盡美)한 지도자를 구하기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그 대선 후보들을 철저히 검증하여 적어도 최악의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만이라도 피해야겠다.

그리고 오늘의 정치가 불만스럽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바른 길로 가도록 매질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기복이 있겠으나 이제보다는 오늘이 나은 게 우리의 정치이기 때문이다. 유신과 군사 정권 같은 질곡도 있었지만 결국은 민주화를 이뤄냈다. 지금 선거의 혼탁상을 개탄하지만 과거의 투개표 부정은 사라지고 관권선거, 금권선거도 많이 정화된 게 사실이다. 세월이 흐르면 네거티브 선거전도 개선되고 후보들의 도덕성과 자질 등도 많이 업그레이드될 것이다. 쓰레기더미라고 장미꽃이 왜 못 피겠는가. 희망을 버리지 말자.

wjbaek@kmib.co.kr

나대로 (7843) 이홍우





송년의 밤



· 老松처럼 무병장수

· 송구영신(送舊迎新)의 대한언론인회 '송년의 밤'에 많은 회원들이 참석, '자유언론'의 뜻을 되새겼다.

← 1면에서 계속

‘30년 대한언론인회’ 기념비 새기다!

이날 2007년도 대한언론상 시상식에서는 본상 백화종(白和鍾) 국민일보 편집인과 공로상 이흥우(李興雨) 동아일보 편집위원(만화가)에게 제재형 회장이 상패와 부상(금일봉)을 각각 수여했다.

수상자 공적을 보면 언론상 백화종 국민일보 편집인은 특출한 필치의 시사칼럼을 통해 파사현정의 정신으로 정론직필을 펴 서민독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사회적 갈등해소에도 큰 몫을 해왔다.

또 공로상의 이흥우 동아일보 편집위원은 암울했던 제5공화국부터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27년 동안 동아일보 4컷 만화 ‘나대로 선생’을 연재하면서 독자의 시대적 갈등을 풀어주는 반사경 역할을 다해왔다.(수상 소감 등 관련 글·만화 5면)

이어 정해년(丁亥年)에 고회가 된 29명의 회우들에게 회장단과 고문들로부터 분회 마크가 새겨진 금반지와 기념품이 증정됐다. (‘고회 잔치상을 받고’ 별항)

‘30년사’와 회보 축쇄판 제2집 출판기념회에서는 김광희 편찬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제재형 회장이 회원

을 대표한 이혜복 상임고문에게 책을 증정했다. 또한 30년사 편찬주간 정운중 이사와 회보에 ‘대신 바로 잡습니다’를 12년간 장기 연재한 김호 전문위원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에 앞서 새로 명예회원이 된 윤세영 SBS회장과 이효계 숭실대 총장의 소개와 인사가 있었다.

이날 고회연 행사를 위해 문화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 연합뉴스 등에서 협찬 해 주었다.

古稀 잔치상을 받고



朴敬錫

- 본회 논설위원
- 동아일보 동우회 회장
- 전 국회의원

존경하는 원로 선배님들, 그리고 회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3년전에 고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만 호적 탓으로 오늘 이렇게 애정어린 축수인사를 받고 보니 계면쩍기도 하고 무어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대한언론인회는 원로언론인 단체로서 30년동안 꾸준히 발전해 왔고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엔 괄목하리만큼 활성화되고 있어

애정어린祝壽 고마움 느끼며 대한언론인회 활성화에 찬사

서 제재형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여러 조직 및 부서에서 노심초사 일하시는 여러분에게 경의와 찬사를 보내고자 합니다. 대한언론인회 30년사 출간, 회원신상카드 전산화,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정관과 각종 법규정비, 고령회우 우대, 재정 건전화 등은 큰 결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자유언론 창달을 위한 노력도 돋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일에 있었던 외교부와 세종로 거리에서의 정부언론탄압에 대한 항의시위는 모든 이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건국대통령 이승만박사의 저서 ‘Japan Inside Out’의 번역출판은 훼손되고 있는 대한민국 정통성의 재정립을 위해서도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대한언론인회가 높은 품격을 지니고 시대를 선도하며 존경받는 단체로 더욱 더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고회연 행사 협찬 : 문화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 연합뉴스



· “대한언론인회 30년사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30년사 발행 인사말을 하고 있는 제재형 회장.



· ‘07 대한언론상 수상자 백화종 국민일보 편집인(왼쪽)과 이흥우 동아일보 편집위원.



· 감회에 젖어있는 고회 회우들. 7순이 그다지 실감나지 않는 표정들이다.

알림

‘30년사’·회보축쇄판 수령 요망

‘대한언론인회 30년사’와 ‘회보축쇄판 제2집’이 발간되었습니다. 지난달 30일 송년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회우들께서는 본회 사무처를 방문해 출판물을 수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로 관계로 직접 우송해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회원수첩 발간

2008년도 회원수첩을 새로 제작하고자 하오니 주소 전화 변경, 경력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회원들께서는 12월 20일까지 변경 내용을 본회 사무처로 연락 바랍니다.

축하회환

장대환(한국신문협회 회장)
조민제(국민일보 사장)
이효계(숭실대 총장)
천신일(고려대학교우회 회장)
박기석(고려라이온스클럽 회장)
김홍도 감독(한국미래포럼 총재)
정찬우(재경경남도민회 회장)
신대도(재경고성향우회 회장)
소일권(한국재경신문 발행인)
김현욱(중앙대 예술대)



· 철새처럼 구구 팔팔

이 모 저 모

· 대한언론인회 발전과 더불어 회우들이 건강하길 기원하면서 격려와 박수 속에 새롭게 친목을 다졌다.



· 제재형 회장이 회우들을 대표한 이해복 상임고문(오른쪽)에게 '대한언론인회 30년사'를 증정하고 있다.



· 공로패를 받은 정운중 '30년사' 편찬주간(왼쪽)과 김호 본회 전문위원.



太平路만평

沈載福
본회 회우

브라보 30년! 새롭게 출발

'30년사' 출판 그 의미

'대한언론인회 30년사'는 우리 이야기다.

1977년 4월 25일 독립신문 창간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밖으로는 민족의 자주민주사상을 고취시켰던 독립신문의 높은 뜻을 되새겨 후진들에게 일깨워주고 안으로는 회원간의 친목과 연구를 통해 이 나라 언론 발전에 기여하자'며 첫발을 내디딘 대한언론인회가 지난 30년 동안 걸어온 발자취가 총 정리돼 있다. 특히 대한언론인회가 단순한 친목 단체로 머물지 않고 '언론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슬로건으로 자유언론 창달에 정진해 온 산 기록들은 언론사적으로도 값진 의미가 있다.

전체적인 구성은 창립정신, 성장과 도약, 정체성 확립과 언론창달, 우리의 목소리를 담은 회보가 걸어온 길, 명예의 전당 및 대한언론상, 출판 공익사업, 후생복지, 연지(年誌)와 각종 자료를 정리한 부록 순으로 엮여져있다.

4×6 배판 740쪽. (첨미디어)



· 고학회우 29분에게 회장단과 고문들이 순금반지와 선물을 드리고 있다.

자부심을 디자인하다

The Prestige **XUI** 자이

모두가 꿈꾸는 그곳 -

XUI 자이

· 건강코너

뇌 졸 중

절대 쓰러지지 않는 비법

뇌졸중이란?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中風이라 한다) 뇌 혈관이 막히거나 그 반대로 뇌혈관이 터져(뇌출혈) 뇌 손상을 일으킨다. 따라서 뇌 기능이 저하되어 갑자기 쓰러지거나 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일본의 구니와케시(市)에 있는 양로원 '게이쇼엔'에서 여러 노인들이 쓰고 있던 아래 비법이 세상에 알려져 일본에서는 선풍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이미 수천명의 사람들이 실험을 해 본 결과 이 마법을 사용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뇌졸중으로 쓰러진 사람이 없다고 한다.

뇌졸중 예방 신비의 약 만드는 법 (1인분 기준)

1. 계란(유정란) : 1개 (단, 흰자위만)
2. 머구(머위)잎의 즙 : 작은 스푼 3스푼 (3잎 정도) (잎 뒤에 털이 있는 것은 효과없음)
3. 청주(정종) : 작은 스푼 3스푼 (소주는 안됨)
4. 매실즙 : 매실 1개를 씨를 빼고 즙을 낸다. (반드시 청매실 일 것 : 익은 것은 약효 떨어짐)
5. 조제 순서
→ 계란 흰자위를 플라스틱 용기에 넣고 나무 젓가락으로 150회 정도 같은 방향으로 젓는다.
→ 머구잎 즙을 넣고 50회 정도 젓는다.
→ 그 다음 청주(3스푼)를 넣고 30회 정도 젓는다.
→ 마지막으로 매실 즙을 넣고 20회 정도 젓는다.

※ 주의

반드시 순서대로, 쇠붙이에 닿으면 안되며, 복용후 30분 이내는 물,음식물을 절대 먹지말것. 틀니나 의치가 있는 분들은 스트로(빨대)를 이용할것.

- 이 신비의 약은 평생에 단 한번 복용으로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불상사가 없다고 한다.

☞ 증상으로 알아보는 뇌경색 체크표 ☞

- 평상시와 다른 두통이 긴 시간 동안 계속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 평소 현기증이 심하게 나타나면서 구토가 있거나 메스꺼움이 나타난다.
- 걸을 때 다리가 꼬이거나 걸려 넘어질 뻔 하기도 한다.
-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문턱을 넘을 때 한쪽 발을 자주 부딪친다.
- 이전에 비해 손끝이 자연스럽지 않다거나 글씨가 바르게 써지지 않는다.
- 이전에 비해 계산이 서투르고 특히 숫자 개념이 모호해졌다.
- 얼굴과 입술이 마비될 때가 종종 있다.
- 일시적으로 의식이 몽롱할 때가 있다.
- 갑자기 혀가 잘 듣지 않아 말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다.
- 말을 얼버무려서 알아듣기가 쉽지 않다.
- 물을 먹을 때 사래가 자주 걸린다.
- 사물이 이중으로 보이거나 시야가 흐려진다.
- 작은 일로 갑자기 운다거나 큰 소리로 웃어댄다.
- 갑자기 침울해진다거나 우울해질 때가 있다.
- 손발이 저리다.
- 평상시 대소변 장애가 나타난다.

회우들에게 '침술 봉사'



대한언론인회는 회원들의 건강후생을 위해 매달 침술 봉사를 실시한다.

1차로 지난 11월 26일 대체의학 전문가 김의열(金義烈·64)씨와 침술봉사자 정재필(鄭在弼) 회우가 이사회에 참석한 회우들을 대상으로 침술 시범을 보였다.(사진) 회우들의 많은 호응이 있기를 바란다.



재미따당

'여성들의 질을 넓혀야 합니다'

요즘 여성들이 너무 설치는데 분개한 〇〇당 어느 의원나리
요즘 우리나라 여성들의 질(質)이 너무 형편없습니다. 여성들의 질을 더 넓혀야 합니다!?

그러자 각계 여성단체에서 벌떼처럼 일어났다.

지 높은 ~~얼마나 굵기에 우리 여성들의 질(腔)을 넓히려는 거야?

언제 지 높이 한국 여성들의 질을 다 보았던 말인가?

여론이 비등해지자 그 국회의원은 다음날 정정 발표를 했다.

한국 여성들의 질(質)은 그만 하면 충분합니다.

다만 한국 남성들의 자질을~~키워야 합니다!"

※자질을...資質을 ㅎㅎㅎ

一笑一少

一怒一老



김승웅의

클래식 영화 탐험



· 필자 : 본회 회우 · 빅뉴스포럼 대표 · 전 한국일보 파리특파원

“영화 속에서, 특히 여성취향 드라마에서 리얼리티란 별 볼일 없는 것” 이라고 영화 감독 머빈 트로이는 여러차례 말했다. 트로이 감독의 이 말을 <영화 탐험>의 마무리 시점에서 떠 올리고, 또 그 탐험의 마지막 기착지를 <워털루 브릿지(Waterloo Bridge)>로 삼은 것은 그야말로 <애수>라고 표현할 수 밖에 없는 우리들의 향수때문이다.

도버 해협을 페리로 건넌다. 파리에서 물고 온 내 차도 페리에 함께 실었다. 런던까지는 그럭 저럭 운전하는데 어

다리 화관, 그 렌스 올 아 엄창 언저리에 그리고 오페라 들과 함



려움을 겪지 않았으나 막상 런던 시내로 들어오니 눈이 팽팽 돈다. 모든 차가 파리와는 정반대로 좌측통행이기 때문이다. 할 수없이 택시를 불렀다. 그 택시를 앞세워 워털루 다리에 닿고, 택시요금을 물었다. 내 차를 운전하며 택시요금 물어보긴 난생 처음이다.

런던시내 한 복판, 템즈 강(江)이 기억자로 굽이 도는 모퉁이에 가로걸린 이 평범한 다리는 영화 <애수(哀愁)>의 타이틀 무대이고 주제이고, 기승전결(起承轉結) 자체이다.

그러나 머빈 트로이 감독이 로버트 테일러와 비비언 리라는 환상의 미남 미녀를 써서 1940년에 만든 <애수>는 러닝 타임 1시간 42분 전 분량이 할리우드 MGM 세트에서 촬영된 것이다. 영화속의 워털루 다리 자체가 세트였다는 말이다. 그나마 이 다리마저도 2차대전중 파손돼 1945년 재건된 것이다. 영화가 제작되고 5년 뒤 일이다.

따라서 영화의 타이틀 무대인 워털루 다리를 찾아서 우리의 향수를 떠올림은 영화의 일본식 제명(題名)대로 <애수>에 그칠 뿐, 리얼리티의 탐험은 되지 못한다.

허나, 그렇더라도 나는 지금 그 다리에 섰다. 로버트 테일러가 그랬던 것처럼 난간에 기대어 서면, 군복을 걸치지 않았으나 그대로 멜로드라마의 주인공이 된다.

템즈 강에 반사되는 불빛을 따라가면, 더러는 공습경보의 사이렌이 울리는듯, 군용트럭의 끊임없는 행렬과 브레이크의 파열음이 들리는듯, 아니면 "당신만을 사랑해요"하는 마이러의 마지막 속삭임인듯, 착시(錯視)와 환청(幻聽)의 즐거움에 빠지는 것이다.

워털루 다리는 남쪽으로 워털루 로(路)를 연결한다. 영화 속의 두 주인공이 처음 만나 대피하고 전장으로 떠나보내며, 귀환장면과 거리의 여인이 되어 다시 만나는 워털루 역(驛)도 바로 그곳이다.

워털루



· 멜로드라마가 갖춰서 비비언 리의 청후 무수한 비극적

• 머빈 르로이의

哀愁

Waterloo Bridge

남안(南岸)에 맞닿은 곳에 유명한 국립극장, 국립영
리고 로열 페스티벌 홀이 자리잡았고, 1937년에 로
리비에와 비비언 리가 햄릿과 오페리아 역(役)을 맡
고 고전극 선봉을 몰아왔던 ‘올드빅’ 극장도 바로 그
에 있었다.

그 보편 이 일대는 다리 북쪽의 코벤트 가든, 로열
하우스, 그리고 샤프티스베리 가(街)의 무수한 극장
에 영국 무대 예술의 본거지였던 셈이다.



• 전 세계 연인들을 울린 ‘애수’의 포스터.

그런데 위털루 역과 위털루 로(路) 일대는 본래부터 소매

치기와 창녀, 주정꾼의 거리로 악명 높던 곳이다. 영화의 주
인공 마이러가 발레를 공연중이던 올림픽 극장은 바로 올드
빅 극장이 있었음직하고, 엄격한 발레 단장 키로바 여사는
올드빅에서 새들러스 웰즈 발레단을 키운 전설의 무대예술
가 릴리언 베일리즈 여사였음직하다.

그곳에서 일터를 잃은 애송이 무희(舞姬) 마이러가 위털
루 역을 무대로 몸을 팔게되는 지리적 구성만은 리얼리티가
완벽하다.

〈애수〉의 원작은 훗날 〈우리 생애 최고의 해〉를 썼
던 미국의 극작가 로버트 셔우드의 1930년작
무대극이다. 여성취향 멜러드라마의 요소때문에 무대극으로
보다는 영화로 일찍부터 팔려, 비비언 리의 것 이전에도 베
티 데이비스의 것, 레슬리 카론의 것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그 어떤 전작(前作)보다도 머빈 르로이 + 비비언
리 + 로버트 테일러의 〈애수〉가 가장 성공적이었음은 두
말 할 나위가 없다.



• 할리우드의 대표적인 로맨스 영화 〈애수〉는 전쟁이 빚어낸 비극적 사랑을 통해 차분하게 반전 메시지를 전해주었다. 아울러 안개 낀 위털루 다리의 정취나 멜로드라마 특유의 서정어린 대사와 주인공들의 모습은 전 세계 연인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기도 했다.

위털루다리서 幻聽의 즐거움에 빠져

우리들 가슴을 설레게 했던 그 환상의 美男美女는 없지만...



Auld Lang Syne

Should auld acquaintance be forgot
and never brought to mind?
Should auld acquaintance be forgot
and days of auld lang syne?

Chorus

For auld lang syne, my dear,
for auld lang syne,
we'll take a cup of kindness yet,
for auld lang syne.

We twa hae run about the braes,
And pou'd the gowans fine,
But we've wander'd monie a weary fit,
Sin auld lang syne.

And here's a hand, my trusty friend
And gie's a hand o' thine
We'll tak' a cup o' kindness yet
For auld lang syne.

석별

※ 영화속 노래

옛 친구들을 어찌 잊고
다시 생각하지 않을까?
정든 친구들 어찌 잊으며
그리운 시절 어찌 잊을까?

합창

지나간 그리운 시절위해
이보게, 그리운 시절위해
우리 우정의 잔을 함께 드세,
그리운 그 시절을 위하여.

우리 둘은 언덕에서 뛰놀며
예쁜 메이지 꽃을 따 모았지, 하지만
우리는 오랫동안 지친 발로 여기저기
헤매 다녔어 그 시절 이후 내내.

그래 악수하세 내 믿음직한 친구여
자네 손을 주게나.
우리 우정의 잔을 함께 드세
그리운 그 시절을 위하여.

〈애수〉에서 영화의 분위기를 살리는 ‘Auld Lang Syne’은 1788년 영국 스코틀랜드의 시인 로버트 번스가 작곡한 가곡이다. 곡명은 ‘그리운 옛날’이라는 뜻이며, 한국에서는 ‘석별’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다. 이 노래는 전 세계적으로 이별할 때 불리고 있으나 내용은 다시 만났을 때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다. 보통 사람들은 첫 절과 합창부분만 노래하곤 한다. 이것이 전통이 되어버렸다. 영국인들은 파티가 끝났을 때, 그리고 특히, 12월 31일 자정, 해가 바뀔 때, 가는 해를 아쉬워하면서 이 노래를 부른다.

〈퀴바디스〉(1950) 〈마담 퀴리〉(1944) 〈마음의 행로〉(1942) 등으로 유명한 머빈 르로이는 무성시대부터 영화관에서 잔뼈를 키워온 대표적 상업 감독이다.

그가 40년 이 영화를 만들 때 이미 전해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스칼레트 역(役)으로 아카데미 상을 받은 비비언 리는 그때 한창 공공연한 동거관계였던 로렌스 올리비에와의 공연(共演)을 원했으나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아 실망했다고 한다

그렇기는 해도, 〈애수〉가 1940년 10월 뉴욕에서 개봉됐을 때 비비언 리는 뉴욕 타임스의 평자(評者)에 의해 “의심할 바 없는 금세기 최고의 여우(女優)라는 찬사를 들었다.

1913년 인도 히말라야 산록 다르질링에서 태어나 영국 독일 프랑스를 전전하며 성장했고, 딸 하나를 둔 어머니로 영화와 연극에 데뷔했으며, 거의 색정광(色情狂)적인 정열로 로렌스 올리비에와 사랑을 나누었던 비비언 리는 스칼레트 역(役)에 이은 마이러 역으로 그녀의 전설의 시대를 화려하게 개막했던 것이다

위털루 다리. 산책나온 50대 신사를 잡고 말을 건넌다. “아, 그 미국 영화라면 본 일이 있다. 비비언 리가 아름다웠다” 고 대답하는 신사에게 영화 속에 나오는 캔들 클럽을 추천했으나 결과는 무위.

대신 캔들 클럽에 대해서는 이런 기록이 남아있다. “...대본을 밤새 수십번이나 되풀이해서 읽던 르로이 입에서 마침내 고함이 터졌다. 〈대사없이 한다! 절대로 대사를 넣어서는 안돼!〉 새벽 2시였다...”

그 때 올드 랭 사인에 따라 월츠를 추던 비비언 리의 나이 27세. 그녀는 1967년 7월 8일 폐결핵으로 죽었다. 53세였다. 그녀의 상대역이던 로버트 테일러 역시 1969년 6월 8일 폐암으로 죽으니 57세를 살았다. 아직도 우리를 가슴 설레게하는 환상의 미남 미녀에게도 죽음만큼은 가혹한 리얼리티였던 것일까.

신문시평

‘大選상품’을 제대로 고르게

선거 때만 되면 답답하다 못해 짜증나는 사람들이 많다. 누군가를 고르긴 골라야 하는데 한결같이 성에 차지 않기 때문이다.

마치 질 떨어지고, 성능도 좋지 않은 제품들만 늘어놓고 구매를 강요하는 가게와 상인을 만난 것 같다. 정당이라는 가게는 원래부터 자가 많은 제품들만 구해 놓는 건지, 아니면 괜찮은 상품들이 다양하게 있는데도 공천이니 경선이니 하는 구실을 내세워 마음에도 없는 상품만 진열하는 뻔뻔한 본성을 지녔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대선 뿐만 아니라 총선, 지방선거 등 모든 선거 때마다 국민 즉 소비자들은 만족도 낮은 제품들 중에서 뭔가를 골라야하는 곤혹을 겪는다. ‘최선이 없으면 차선이라도 짚어 달라’ ‘최악을 피해 차악을 선택하도록 하라’는 등 그럴듯한 말로 유권자들을 달래고, 경선에 일반 국민을 참여시켜 소비자 기호를 반영한다고 하지만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국민은 거의 없다.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다. 저마다 자기를 선택해서 나라살림을 맡기

후보 주변도 함께 검증 A/S까지 신경 썼으면

라고 하지만 생산, 유통과정이 의심스러운 농수산물을 대하는 것처럼 찝찝하다. 겉은 멀쩡하지만 농약이 얼마나 많이 함유되었는지, 유통과정에서 어떻게 변질돼 선도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알 길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서로 자기 상품의 흠은 중상모략이라며 변명하고, 상대방은 최악의 불량품이라고 샅대질하니 더욱 헛갈린다.

대통령 선택의 어려움은 이밖에 또 있다. 우리는 여러 대통령을 겪으면서 그 부인과 가족의 언행에 따른 폐해를 적지 않게 입었다. 그것도 모자라 선거운동 참모니 뭐니 해서 한 자리 차지한 측근들이 끼친 피해도 숏하다. 국민은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후보를 선택해야 하니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구하려는 품목도 마땅하지 않은데 끼워팔기 상품까지 강제로 구입하는 기분이다.

이럴 때 신문이 할 일은 분명하다. 어차피 누군가를 선택해야 할 국민들에게 ‘상품 구입 요령 안내서’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각 진영의 주장을 최대한 소개하되 국민 입장에서 냉정하게 비교 분석하여 선택에 도움을 주기 바란다.

가능하면 후보의 부인을 비롯한

가족, 친인척 성향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한다.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언행 때문에 국민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참모니 측근이니 하는 이들의 행동거지도 최대한 검증을 해주었으면 한다.

어느 경우에는 대통령의 시정 못지 않게 친인척과 측근의 일거수일투족이 우리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지금 후보들 가운데서도 본인보다 측근 때문에 지지를 꺼린다는 국민이 적지 않다.

선택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선택 이후이다. 제품 구입 뒤에도 문제가 생기면 기본적인 애프터서비스는 물론이고 최악의 경우 교환이나 환불(선거에서는 여기까지 가는 일이 없어야겠지만)해주는 것처럼 대선

◆ 요즘 신문엔...

事實에 덧칠?

정책은 실종되고 정략만 난무하는 대선 판.

이런 상황에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언론의 책무다.

‘정론직필(正論直筆)’ ‘파사현정(破邪顯正)’을 사명으로 한다는 언론!

소리(小利) 때문에 대의(大義)에 눈을 감고 정곡을 찌르지 못한 채

변죽만을 울리고 있지 않은지?

또 금과옥조(金科玉條)인 사실(事實)에 덧칠을 하거나 개칠을 하고

있지 않은지? (M)

	이명박	이회창	정동영
정부 조직 개편	• '대(大) 부처 대(大) 국' 체제로 개편 • 각종 위원회 대폭 축소	정부조직 대(大)개편	• 정부조직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 대통령과 국무총리 산하 각종 위원회 통합
공무원 수	• 현재 수준으로 동결 • 복지 보건 치안 교육 등 수요 많은 분야에 집중 배치	공무원 수 축소	• 공무원 수 일괄 감축 반대 • 보건 복지 노동 환경 교육 분야의 인력은 늘려와 행정 국방 등의 분야는 줄이
공기업	• 공기업부터 다제정 미연행	필요에 따른	• 공기업의 공공성 감안해 필립정 미연행은 시중 2001

출마자들의 보증서를 받아 두어야 한다. 분명히 자신이 한 말도 아니라고 뒤집는 일이 정치권에 만연돼 그 효력을 장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신문은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들의 약속을 기록해야 한다. 당선되고 나면 모든 의혹과 비리를 힘으로 덮어 버리려는 작태를 그 동안 너무 많이 보아 왔기 때문이다. [4]



朴 連 浩

· 본회 회우
· 전 국민일보
· 논설위원

방송시평

뉴스優位 상실한 공영방송

우리나라엔 두개의 공영방송이 있다. KBS와 MBC다. 이 두 방송이 과연 공영방송이나 하는 문제는 본란에서 논할 생각이 없고 다음 기회에 논할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란다.

이 두 방송의 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공영방송의 몰락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오리란 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뉴스의 질, 양 모두가 케이블TV에 비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대 현재 KBS와 MBC가 YTN이나 WOW TV, mbn등 케이블 뉴스들에 비해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공영방송들은 ‘그렇다’라고 답변하고 싶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YTN은 뉴스종합채널이고 WOW TV는 증권전문 채널, mbn은 경제뉴스에 중점을 둔 종합편성이다. 이들

한가한 퀴즈게임이나 열린음악회를 한 것만 보아도 공영방송 편성의 경직성을 짐작하게 한다.

그렇다면 공중과 방송들이 우위를 주장하는 뉴스의 질은 어떠한가.

공영방송(공중과)들의 케이블뉴스에 대한 질적 우위는 이미 상대적인 것으로 하락한지 오래다. 아무도 공중과의 뉴스가 케이블 뉴스에 비해 절대적 우위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 케이블 뉴스의 약점이라고 할 전국적 네트워크나 취약한 중계방송 시스템도 지방협력사의 확충과 꾸준한 투자로 인해 엇비슷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고 있다. 오히려 케이블 뉴스는 소수정예의 인원과 소규모지만 효율적인 장비로 공중과에 비해 훨씬 낮은 코스트의 뉴스를 생산하고 있다. 같은 물건이라면 싼쪽이 이긴다는 것은 자명하다. 하물며 상대는 위기를 못 느끼고 있고 이쪽은 이기겠다는 투지에 넘쳐 있을때 그 결과 또한 자명하다.

그래서일까. 요즈음 KBS, MBC의 뉴스를 보면 경쟁에 무감각한 태평의 연속이다. 감히 우리를 어떻게 할것이나 하는 자세다. 혹 편성 결정권자들이 뉴스를 대강해도 공영

CATV에 뒤떨어져 끝내 몰락하지 않을까

방송에 지장이 있겠는가 하는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기우에서 한마디를 하고 싶다. 뉴스는 공영방송의 생명이다. 뉴스가 없는 공영방송은 상상할 수가 없다. 왜 그런가. 뉴스는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다. 뉴스는 우리 생활 그 자체이고 과장될 수도 왜곡될 수도 없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어야 하는 진실성을 생명으로 하기 때문이다. 객관성, 정직성 그리고 신속성은 국민들과의 엄숙한 약속이다. 공영방송의 표본이라는 영국의 BBC나 일본의 NHK가 그렇게 뉴스에 정성을 들이는 것도 정직하고 신속하고 객관적인 뉴스야말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시청자들이 외면하는 뉴스의 공영방송은 곧 망한다는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배우고 있지 않은가. [4]



趙 昌 化

· 본회 회우
· 전 KBS 기초실장

지시와 청탁 묵살

(下)

“그 기사 좀 줄일 수 없소?”

꽃을 피우는 화목(花木) 보다는 나목(裸木)과 가시 덤불이 뒤얹힌 오래된 정원을 되돌아 보는듯한 느낌이다. 30년도 더 된 이야기지만 회상하면 늘 난감하다.

기자생활의 거의 전부를 편집기자로 지낸 나의 지난 이야기는 내가 편집기자였기 때문에 치러야 했던 ‘대가(代價)없는 희생’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그건 내가 사서 한 일이기 때문에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할 일은 아니다.

취재부 기자에게도 특별한 경우 사장이 어떤 기사를 지명해서 무슨 지시를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편집기자의 경우, 실무를 관장하는 데스크가 되면 지시 수령(受領)의 빈도가 잦아진다. 사장의 지시라도 사적인 일은 거부하기가 어렵다. 사적이면서 파렴치한 지시를 내릴 턱은 없으므로 고려 밖의 일이 되겠지만 정국이 소용돌이 치면 사장의 지시는 찾아지고, 그것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작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편집기자에게 따로된 복무규정이 있어 어떤 경우에도 사장의 지시는 어길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것도 아니어서 배짱 여하에 따라서는 목을 걸게 된다. 그러나 말이 그렇지 어떤 불이익이 떨어질지 모르는 일을 위해 진퇴를 걸기는 어렵다.

나의 경우는 설마 내 목을 치라? 하는 다분히 낙관적인 바램이 내 결단의 바닥에 깔려 있었으나 잘못된 일을 잘못되었다고 판단·처리하는 것은 신문기자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닌가? 더구나 편집기자임에랴. 원천적으로 기사를 봉쇄하면 편집부는 판 방법을 갖지 못한다. 그러나 취재부서에

서 이런저런 기사가 넘어 왔는데 편집부의 판단에 제약을 가하고 처리를 못하게 하는 일은 오보가 아닌 이상 사장이라도 해서는 안된다는게 당시의 나의 생각이었다. 말이야 그렇지만 사장의 뇌리에 각인(刻印)된 내 이름 석자에는 미운털이 고슴도치처럼 박혀서 나의 출세길은 가로등 다 꺼진 골목길처럼 될 터이니 이를 두고 자업자득(自業自得)이라 할 것인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장이나 국장의 지시가 더러 조금전에 정보부에서 걸려왔던 청탁 내지는 압력 사항과 동일했을 때 나는 국장이나 사장의 지시를 깔아뭉개려고 들었으니 사마귀가 수레에 대드는 꼴이 되곤 했다. 당시엔 정보부 요원이 신문사 마다 무상출입, 상주(常駐)하다시피 했다. 동아일보사는 경상도 출신인 김씨 성 가진 정보부 요원이 맡고 있었다. 나도 경상도 출신임을 아는 그는 ‘경상도’가 무슨 부적이냐 되는 것처럼 부탁하기 전에 꼭 ‘경상도’를 들먹였다.

내 책상위의 전화통이 운다.

“누구요”

“아이구, 나요 나요”

“모르겠는데...” 짐짓 모른척 한다.

“또 모른척 한다. 보소, 나 김아무개요”

“뭔데”

“그 기사 좀 줄일 수 없소, 그런걸 그렇게 크게 하지요”

칼처럼 끊는다. 두 말 붙일 수 없도록 매몰차야 뒷일이 편하다.

그 전날 공화당의 유세청중을 실은 트럭이 었어져서 여러 사람이 다치고, 죽은 사람도 있었던 사건이 일어났다. 김아무개의 전화가 있기 전 첫판 때 이미 기사를 크게 다루지 말라는 사장 지시가 있었으나 나는 지시를 무시하고 사회면 머리쪽에 크게 올렸으니 사단이 벌어진 것이다.



· 편집을 제약하는 지시를 한번도 한 적이 없는 당시 천관우 동아일보 편집국장.

그 때 나는 편집부 수석기자로 사회면을 맡고 있었다. 이럴 때 편집부장도 나를 제어하지 않았다. 말로써 시비를 가리자면 말발은 내쪽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장자리에 앉아 있는 이는 ‘천하의 천관우’다. 사장실에서 천관우 국장을 호출하는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나 천관우국장이 사장실로 급히 내려가는 모습을 나는 본적이 없다. 언제나

内外壓力 바람막이 千寬宇 국장

소용돌이 政局에서 ‘편집의 自主’ 지키게

태연자약하고 엄정했다. 국장이 판단하고 지시할 일이 무시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일에 천관우 국장이 말수적게 판단을 내리면 그것으로 끝이었다. 텃세로 유명한 동아일보 편집국, 산전수전 다 겪은 부국장들도 나이가 되레 아래인 천관우 국장에겐 한 수 꺾이는 듯 한 것은 명징(明徵)한 판단과 태산같은 무게 때문이었다.

점심 때 국장석에 앉아서 찌개에 밥을 두 그릇이나 마파람에 게논 감추듯 하고 저자거리 같은 편집국, 중인환시리에 코를 드렁드렁 골며 잠에 떨어진 그의 장대(長大)한 체구는 가위 압권이라 편집국으로 올라온 사장은 먼 발치로 보기만 하고 사장실로 내려가곤 했다.

앞서 국장의 지시를 내가 더러 어긴 것으로 이야기했지만 천관우 국장은 정국이 소용돌이 칠 때도 편집을 제약하는 지시를 하거나 사장의 지시를 전달한 적이 한번도 없다. 그는 나의 논란 밖에 있다. 국장도 국장 나름이지.

청 요리집서 ‘배갈징벌’

한번은 ‘적십자사의 회비 잘 내자’는 구호를 사회면에 첫 기동으로 실으라는 편집부장의 지시를 내가 거부한 적이 있다. 부장은 당시 적십자사 총재가 동아일보 사장을 하다가 박정희 대통령의 삼고초려에 의해 국무총리를 지낸 뒤 그 쪽으로 간 취두선씨를 생각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적십자사의 회비 잘 내자는 구호는 해마다 적십자사가 내거는 것인데 그걸 사회면에 첫 기동으로 세우라는 판단은 잘못이라고 본 내가 안된다고 했다.

“적십자사 100주년 기사라면 모를까 해마다 하는 소리를 첫 기동으로 세울수는 없지요”

권도홍

- 본회 회우
- 전 동아일보 편집부장
- 전 주부생활 부사장



“그렇지 않아요, 실으세요”

“안됩니다. 동아일보가 무슨 업계지(業界紙)입니까?”

“실어요. 안실으면 신상에 해로울거요.”

나는 편집부장의 그 말이 떨어지자 적십자사에서 사무국장이 가져온 인쇄물을 한 주먹에 구겨서 쓰레기통에 집어넣었다. 편집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으나 그것으로 상황 끝이다. 그때도 편집부와 지근거리 에 있는 국장석에서 자초지종을 목격한 천관우 국장은 아무 말 없이 의자를 돌려 그 무렵에 있었던 현대건설 건물 쪽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 뒤로도 그 일에 대해선 아무 말이 없었다. 내 판단이 틀렸다면 어쨌서 천관우 국장이 가만 있었을까. 잘못된 판단을 내가 것처럼 우겼더라면, 아마 산을 무너뜨리는 일갈(一喝)이 있었을 것이다.

공화당의 유세장으로 가던 청중 실은 트럭의 전복사건으로 난리를 치른 그날 저녁 천관우 국장은 현대건설 옆 골목길 끝에 있었던 청요리 집에서 술을 샀다. 그는 중국음식점을 늘 청요리집이라 했다. 청요리를 여러가지 시키곤 배갈을 마셨다. 술잔이 착륙하는 법 없이 공중을 줄곧 왔다 갔다 한 끝에 술을 웬만큼은 마셨던 나도 견디지 못해 눈앞이 몽롱했는데 그는 덩치가 커서 그런지 취기가 그다지 심한 것 같지 않았다.

술을 마시면서도 천관우 국장은 낮에 있었던 난리에 대해 아무 말이 없었다. 나는 ‘독주에 의한 징벌’이 아니라 ‘암묵의 양해’이거나 ‘격려?’ 쯤으로 이해했으니 속 편한 이야기이다. 천관우라는 든든한 바람

막이가 없었다면 소신껏 일하기도 어려웠을 테고, 1975년의 ‘자유언론수호투쟁’으로 집단 해고 사건이 있기전에 이미 나는 해직이 되지 않았을까. 지금 생각하면 그렇다.

1969년 9월 14일 새벽 2시50분께 서울신문 뒷면에 있었던 국회 제3별관 특별회의실에서 제6차 본회의를 소집한 공화당은 야당 몰래 저희들 122명의 가(可)표만으로 3선 개헌안을 변칙 처리했다. 그날 동아일보 호외팀은 필자와 신양휴차장, 안종필기자, 최재욱기자다. 안종필기자는 75년의 ‘자유언론수호투쟁’의 과정에서 옥고를 치르고 출옥한 뒤 그 속에서 얻은 병으로 삶을 마감한 기자다. 그는 가고 ‘안종필언론상’을 범의 가족처럼 남긴 열혈기자다. 최재욱기자는 뒷날 경향신문 사장과 환경부장관을 지낸 영특하고 날쌔기자.

東亞만이 ‘변칙 처리’로

그날 밤 동아일보 호외팀은 제3별관에서 3선개헌안이 처리되었다는 소식을 들곤 그곳으로 쫓지에 불붙은 것처럼 달려갔다. 공화당의원들이 하나같이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무슨 때도독처럼 물려나오고 있었다. 그들의 한 짓이 부끄러운 행위가 아니라면 불빛아래 얼굴을 가리고, 고개 숙인채 물려 나왔을까. 정치가 무엇인가. 정치가는 또 무엇인가? ‘정신의 매춘으로서의 정치’를 마르고 닳도록 되풀이하는 이 땅의 일부 정치하는 자들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그날 밤의 신을 잊을 수가 없다.

그날 새벽 발행된 동아일보의 호외 컷은 신문지 반쪽짜리를 가로지른 ‘3선 개헌안 변칙처리’다. 이튿날 도하 모든 신문의 호외 재록 컷은 ‘삼선개헌안 통과’가 아니면 ‘삼선개헌안 변칙통과’였다. ‘변칙처리’는 동아일보만의 것이었다. 정보부의 끈질긴 청탁은 ‘통과’라는 말만 넣어달라는 것이었다. 이튿날 첫판 편집 때 사장실에서 올라온 지시도 ‘변칙통과’였다. 그러나 편집부는 버텼다.

· 13면에 계속 →

www.kobaco.co.kr

한국방송광고공사가 **kobaco**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행복을 전하겠습니다.
온 세상에 희망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새 얼굴로 새 다짐을 합니다.
세상 곳곳에 더 큰 즐거움을 전할
코바코의 새로운 출발을 지켜봐 주십시오.

kobaco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새 C이름은 즐거움, 다양성, 성장, blooming, network, connection, care 등
건강한 미디어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밝고 따뜻한 세상을 꽃 피워가는 사랑받는 공익기업으로서의
비전을 형상화하였습니다.



〈두역시니: 얼굴 없는 軍師〉 고두현 지음

〈두역시니〉는 1997년 봄부터 3년 6개월간 ‘월간 태권도’에 연재되었던 소설. 일본의 한반도 강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동학란을 이끌었던 전봉준의 꺾이지 않는 신념과 불꽃같은 삶을 돌이켜보는 소설이다. 1894년의 동학란은 우리의 근대사에 엄청난 족적을 남긴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전봉준은 큰 뜻을

동학군의 문둥이 복면무사 이야기

이루지는 못하였으나 친화력, 설득력, 통솔력이 뛰어난 지도자로 지금도 평가되고 있다.

체육기자 출신인 지은이 고두현(高斗炫) 회우는 전봉준을 보좌하여 동학농민군을 움직인 군사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 책에는 복면군사 ‘두역시니’를 주축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1894년, 즉 그리스 아테네에서 근대 올림픽 첫 대회가 열리기 고작 2년 전 아직껏 그 정체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동학군의 군사이자 문둥이 복면무사 두역시니가 등장한다. 역사소설답게 이야기의 전개가 빠르고 박진감이 있다. (나노미디어 펴냄)



〈한국 어린이 문화 운동 100년〉 유한준 지음

‘한국 어린이 문화운동 100년’은 우리나라 근현대 어린이 문화 운동의 역사를 한눈에 살필 수 있는 책이다. 아동 문학가인 유한준(兪漢俊) 회우가 30여년간 모아온 자료와 취재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아동문화 운동의 발자취를 조목조목 상세히 다루고 있다.

근·현대 우리 아동 문화 운동 발자취

지은이는 1908년 육당 최남선이 발행한 아동 잡지인 ‘소년’을 우리나라의 근대 어린이 문화운동의 시발점으로 보고, 현재까지 모두 10개의 시기로 구분해 어린이 문화에 영향을 끼친 주요 사건과 아동 관련 단체들의 활동을 자세히 안내한다. 1908년부터 해방 이전까지의 시기에는 어린이 애호 정신에서 출발한 어린이 문화운동이 색동회 창립과 어린이날 제정으로 꽃을 피웠지만 일제에 의한 탄압으로 암흑기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잘 드러난다. 그런가 하면 해방 이후 1960년 과도기와 1970~1980년대에서는 어린이 문화운동을 이끈 아동 문학의 흐름과 특수성을 비중있게 소개한다. (어깨동무 펴냄)

〈큐피드의 독화살〉 최금녀 시집

시인인 최금녀(崔金女) 회우가 다섯 번째 시집 〈큐피드의 독화살〉을 펴냈다. 최 회우가 펴낸 시집으로는 〈들꽃은 홀로 피어라〉 〈가 본적 없는 길에 서서〉 〈내 몸에 집을 짓는다〉 〈저 분홍빛 손들〉이 있다.

최금녀 회우가 좀 더 일찍 시인과 작가의 길로 걸어 갈 수가 없었던 것은 정치인의 아내이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부군인 신경식(辛卿植) 회우는 집권여당(한나라당)의 사무총장과 정무장관을 지낸 4선의 중진의원이었



시의 화살은 猛毒이다

고, 최 시인은 정치인의 아내로서, 그 내조만으로도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것이다. 그러다가 문득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토록 오랜 소망이었던 시인의 길로 다시 돌아왔던 것이다.

그는 뛰어난 두뇌와 무서울 정도로 엄청난 집중력으로 그의 시적 재능을 갈고 닦아 왔으며, 그것의 구체적인 성과는 이번 시집 〈큐피드의 독화살〉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종려나무 펴냄)



〈신문인생 50년〉 홍원기 지음

이 책은 홍원기(洪元基) 회우(데일리 노컷뉴스 회장)의 체험적 신문인생을 엮은 자전적 신문론으로 이미 2005년 11월에 발간한 〈나의 신문 인생 50년〉을 수정·보완하여 새로 펴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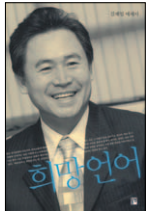
홍 회우는 한국일보가 낳은 최초의 신문배달소년 출신 신문기자이며 신문발행인이다. 이 책에서 지은이는 6·25 전란으로 하

50년 신문인생 엮은 자전적 신문론

루아침에 전쟁고아로 내던져진 후 불굴의 의지로 주경야독을 하며 모진 세파를 뚫고 고학을 해온 과정부터 소상히 쓰고 있다.

어떻게 해서 신문배달에서 신문기자가 되어, 끝내 신문사 대표이사까지 될 수 있었는가의 극적인 인생행로를 씨줄로 하고, 체험적 신문인생 50년을 날줄로 하여 자신의 극적인 인생드라마를 과장 없이 담담하게 엮었다.

특히 언론인이 되고자하는 젊은 신문화도와 어려운 처지에서 청운의 꿈을 키우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필독을 권한다. (춘강 펴냄)



〈희망언어〉 김재일 지음

코리아타임스 칼럼니스트 김재일(金在日) 회우가 펴낸 정치 에세이집 『희망 언어』는 저자가 2002년 출간한 〈팔로 매주를 쏜다 해도〉를 수정·보완한 것으로, 희망을 주는 ‘말(言)’을 사용하여 세상을 밝게 만들자는 바람을 품고 있다.

이 책은 국민이 마음 놓고 따를 수 있을 만큼 신뢰받는 지도

정치에서 말의 중요성 다룬 에세이

자가 필요한 오늘날을 위한 정치 에세이다. 정치에서의 말의 중요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아울러 지도자의 말은 나라와 국민을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한다고 역설하면서, 지도자의 진실된 말이야말로 국민을 설득하는 가장 강한 힘을 강조하고 있다.

새로 저술된 제1부에서는 대통령 노무현이 말로서 국민의 신뢰를 잃었음을 주장한다. 제5부는 저자가 언론인으로 일할 때 쓴 신문이나 잡지에 실린 칼럼을 엮은 것이다. 제6부는 신앙적, 교육적 관점에서 자녀에게 권면한 내용을 담았다. (동연 펴냄)

← 11면에서 계속

나의 취재 備忘錄

편집부 평가자들도 발을 구르고, 소리치며 ‘변칙처리’를 관철했다. ‘변칙처리’라 한들 사태가 바뀔 것이며 그것이 역사에 기록될 것인가?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신문의 편집이 ‘자주(自主)’를 세우는 일로서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정보부의 간섭이 없었다면 거의 대부분의 신문은 ‘변칙처리’로 표현했을 것이다. 변칙이라도 법리(法理)상 통과라는 그쪽의 주장에 ‘처리’도 부결을 뜻하지 않는 이상 타당하다는 이쪽의 주장이 꺾릴 것인가? 그것은 국민정서의 반영이다. ‘변칙처리’란 표현은 시내관(2판)때 ‘변칙통과’로 바뀌고 말았으나 그 과정에서 난리법석을 떠는 ‘발열현상’은

동아일보만의 것이다.

그렇게라도, 신문제작의 자주성을 소극적이거나 밀고 나갔던 동아일보가 75년의 ‘자유언론수호투쟁’의 출혈과다 이래로 어떻게 되었는가. 한국언론의 현장에서 상대적으로 강고했던 한 조직의 열화(劣化)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오늘의 조·중·동이라는 말은 그 결과물일 것이다. [필자]

KB *b



이승엽의 스윙보다 더 자랑스러운 스윙이 또 있을까요?



김연아의 스케이트 날보다 더 눈부신 칼날이 또 있을까요?



비보이의 몸짓보다 모두를 감동시킨 몸짓이 또 있을까요?

5000만명이 함께하는 새로운 1등들의 이야기

국민의 만능입니다

미래를 여는 지혜 — KB 국민은행



Photo News · 사우회

서우회 2007 송년의 밤



서우회(서울신문사 전직사우회·회장 申禹植 본회 고문)의 2007년 송년의 밤이 11월 26일 저녁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200여명의 사우가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열렸다. 이날 회장의 인사말, 서울신문사 盧綽煥 사장의 축사에 이어 李蕙馥 원로사우(본회 상임고문) 南載熙 사우(본회 자문위원)의 회고담 순서가 있었다. 申회장은 이날의 모임에서 원로사우(1920년대 생)로 文濟安, 李蕙馥, 玄英健, 金湖, 閔畿, 金貴濟 본회 회우를 소개했다.

이날 金斗鎬, 金明九, 金昂燮, 金銀九, 金槓基, 金漢吉, 朴範珍, 朴鍾瑞, 朴花珍, 白日鎭, 申東植, 李亨紀, 李琮熙, 鄭基政, 趙觀熙, 趙憲衍, 崔先錄, 崔信鎬, 許東鎭, 邢鎭漢회우등 본회 회우가 대거 참석했다.

言論街

제1회 한국조사보도상 시상

사단법인 한국조사연구학회가 11월 30일 제1회 한국조사보도상을 시상했다. 이번 조사보도상에는 우수상 3편과 특별상 1편이 선정됐다.

우수상은 동아일보 권혜진, 동정민, 민동용 기자의 “14, 15, 16대 대선 포심 GIS 보도”와 중앙일보 신창운기자의 “여권 통합 신당 떠도 지지율은 16%”, 조선일보 홍영림 기자의 “한국 ‘우로 한발 더...’ ‘대북 퍼주기’에 부정적’ 4년간 급증” 등 3편. 특별상은 KBS 시사기획 프로그램 ‘쌈’에서 방송한 ‘얼마나 믿으십니까? 민심·당심 여론조사’가 수상.

요즘...



회우동경

비추미 시상식의 전직 여기자들



삼성생명공익재단(이사장 이수빈)이 주최하고 여성가족부가 후원하는 제7회 비추미여성대상 시상식이 11월 9일 오후 호암아트홀에서 열렸다. 이날 많은 전직 여 기자들이 참석. 달리상 수상자 김후란 회우(“문학의 집 서울” 이사장)를 축하해 주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신동식 회우(한국여성언론인연합 대표), 임영숙 전 서울신문 주필, 김후란 회우, 남승자 전 KBS 해설위원, 김영신 중앙선관위원.

비추미 여성대상은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진과 여성문화 창달에 기여한 인사에게 주는 상이다. 상금은 3,000만원.

데일리노컷뉴스 창간 1주년 행사



신문시장에 새 바람을 일으켜온 ‘데일리노컷뉴스’(발행인 홍원기 회우)가 창간 1주년(29일)을 앞둔 11월 12일 서울프라자호텔에서 광고주와 언론계 인사를 초청, 매체를 소개하는 행사를 개최했다.(사진)

오찬을 겸한 이날 행사에는 민병준 한국광고주협회장 겸 한국 ABC협회장, 채수삼 (주)그레이프커뮤니케이션즈 회장(전 서울신문사장), 김명하 K브레인 회장, 김영일 한국ABC협회 부회장, 김이환 한국광고주협회 부회장, 한형석 마니커 회장 등을 비롯해 광고 관계자 등 내외빈 300여명이 참석, 데일리노컷뉴스의 창간 1주년을 축하했다.

CBS창사 53돌 기념

• 이정식(李廷湜) 회우(CBS 기독교방송 사장)= 지난 11월 15일 저녁 여의도 63빌딩에서 CBS뉴스 부활 20주년 및 창

사 53주년 기념식을 거행, 이날 “CBS는 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서 사랑과 정의를 이 땅에 실천하고 민족과 역사 앞에 희망의 등불이 되겠다”고 다짐.

디지털뉴스협회장에 선출



• 박기정(朴紀正)회우(전남일보 대표이사)= 11월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07년 한국디지털뉴스협회 정기총회에서 제3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대한민국 건국회 부회장 선임



• 김명구(金明九) 회우(본회 자문위원)= 지난 10월 대한민국건국회(사단법인) 부회장으로 선임되어 건국회보 편집인과 주필도 겸임.

아시아투데이 부회장 선임



• 장두원(張斗遠) 회우= 지난 10월 창간된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의 부회장에 선임되었다. 장 회우는 대한일보 체육부·정치부 기자에 이어 KBS의 보도본부 국장, 전주 총국장, KBS 아트비전 감사에 이어 세종대학교 겸임교수, 한국문화번역원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아시아투데이는 온라인신문으로 지난 2년간 착실한 성장을 해오다가 지난 10월 오프라인신문을 매일 32면씩 발행하고 있다.

경제풍월 100호 기념

• 배병휴(裴秉休) 회우(월간 경제 풍월 발행인 겸 편집인)= 11월 9일 저녁

결혼 50주 金婚式



• 장기봉(張基鳳) 회우(전 신아일보 사장)= 11월 18일 오후 5시 조선호텔 20층 호경전(중국집)에서 부인 안남덕 여사와 함께 결혼 50주년 금혼식 만찬을 가졌다.



신라 10왕 청명대제 초헌관

• 박용운(朴容允) 회우(본회이사)= (사)신라오능 보존회 박씨 대종친회 총본부 부이사장인 박회우는 경주 오릉서 봉행한 신라 10왕의 청명대제 초헌관으로 독축(讀祝)하였다.(사진)



해외 나들이

• 이세환(李世煥) 회우= 미국 친지 방문차 11월 15일 출국. 하와이, 아틀랜타, 앵커리지를 거쳐 내년 1월 20일 귀국 예정.

• 홍순일(洪淳一) 회우(전 코리아타임스 논설주간)= 지난 10월 25일 장남 홍용표 교수(한양대 정외과)가 안식년으로 체재중인 오레곤대학이 있는 오레곤주 유진과 LA 등 미국 서부지역을 방문하고 하와이를 거쳐 11월 13일 귀국.

♡ 자녀 결혼 축하합니다

• 이상갑(李相甲)회우 차남 열균=12월 29일(토) 1시 서울대 호암 교수회관 전화 010-7113-1788



*"In my life,
I have many choices."*


Millennium Seoul Hilton

395, 5-ga, Namdaemun-ro, Chung-gu, Seoul, Korea 100-676 C.P.O. BOX 7692 Tel : +82.2.753.7788 Fax : +82.2.317.3273 <http://www.millenniumseoulhilton.co.kr>

왜 세상은 송실을 주목하는가!

송실의 변화와 혁신이 세상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10 마스터플랜에 의한 최첨단 인프라 구축

- Step 1_ 걷고싶은거리 · 형남공학과 · 조만식기념관 신축,
중앙도서관 · 안익태기념관 · 생활문화관 리모델링
Step 2_ 국제기숙사 신축, 송실로 신설, 인문관 · 연구관 · 대운동장 리모델링
Step 3_ IT대학 신축, R&D센터 신축, 광명 제2캠퍼스 조성

글로벌 브레인 양성을 위한 국제화 프로그램

- 매년 500여명 교환학생 파견 계획(SUAP 유학프로그램)
외국 대학원과 국제적인 복수학위 석사과정 진행
전교생의 어학교육 강화(회화, 토플 등 4학기 영어과목 및 제2외국어 의무수강)

우수한 인재의 육성 및 사회 배출 강화

- 신입생 입학점수 급상승(최근 2년간 수능 평균_ 인문계-17점, 자연계-59점 이상 상승)
졸업생의 높은 취업률(06년 순수 취업률 70.1% 기록)



송실대학교
Soongsil University

www.ssu.ac.kr

2008학년도 송실대학교 입시 특성화 장학제도

■ 단과대학별 특성화 장학생 선발기준(문예창작학과, 생활체육학과 제외)

- 인문, 사회, 법과대학 및 인문사회계 자유전공학부
- 언어(1등급) + 수리 가, 나(2등급) + 외국어(1등급) + 탐구영역(2과목, 1등급)
- 경상대학
- 수리 가, 나(1등급) + 언어(2등급) + 외국어(1등급) + 탐구영역(2과목, 1등급)
- 자연, 공과, IT대학
- 수리 가(1등급) + 언어(2등급) + 외국어(1등급) 또는
수리 나(1등급) + 언어(2등급) + 외국어(1등급) + 과학탐구영역(2과목, 1등급)

※ 대학공통 특성화 장학생 장학혜택

- 4년간 전액 장학금, 월 생활비 40만원 지급, 기숙사 무료제공
- 해외 자매대학 교환학생 파견 시 1년간 최대 2만불 지급
- 세계 최우수대학 박사과정 진학 시 2년간 매년 3만불 장학금 지급
- 세계 최우수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본교 교수채용 시 우선 배려
- 출신 고교에 '송실 봉사 장학금' 200만원 지급
- 중국어 단기어학연수 제공 • 노트북 무상지급
- 선발인원 : 25명(최초 합격자에 한함)

■ IT대학 특성화 장학생 선발기준

- 언어(2등급) + 수리 가(2등급) + 외국어(1등급) + 탐구영역(2과목, 2등급)

※ IT대학 특성화 장학생 장학혜택

- 4년간 전액 장학금 및 기숙사 무료제공
- 해외 자매대학 교환학생 파견 시 1년간 최대 2만불 지급
- 취업률 100% 보장, 미취업자 본교 대학원 진학 시 전액장학금 지급
- 중국어 단기어학연수 제공 • 노트북 무상지급
- 선발인원 : 15명(최초 합격자에 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부시행 운용방안에 준 함.(입학상담 820-0050~4)